

## 22차수 - 학부모의 호감지수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

(MC)

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학부모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린앤코이미지연구소 송현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사)

네 안녕하세요 린앤코 송현주 입니다.

(MC)

오늘은 이미지메이킹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강사)

네~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호감가는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지난 차수에 이미지변화 계획전 3가지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MC)

어~~~

매력으로 차별화하라?????(고개를 가우뚱한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강사)

첫째,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보라

둘째, 이미지 자산요소 3가지 외모,기능,감정적 요소 점검해라

셋째, 자신만의 매력으로 차별화하자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섯살 미취학 아동을 둔 한 아이의 엄마지만, 집에서 노는 엄마보다 일하는 엄마를 더 자랑스러워 하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맘이 아니라 워킹맘 이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제가 미혼으로 직장생활 할 때만해도/ 일하는 기혼인 선배들을 “워킹맘”이 아닌 “악바리아 줌마”로 불렸었습니다. /그 소리가 참 억척스럽게 느껴져서 “난 결혼하면 일 안할꺼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대가 좋아지고 이제는 일하는 엄마를 “워킹맘”이라는 멋진 타이틀도 있어 더 당당하고 멋진 엄마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킹맘은 고충이 많죠~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모든게 완벽한/ 워킹맘을 넘어/ “슈퍼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것이 완벽한 워킹맘,슈퍼맘 이신가요?

(MC)

맞아요. 우리 워킹맘들 참 바빠요.

아침에 몸만 빠져 나오기도 바빠서 꾸미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ㅠ.ㅠ

(강사)

그렇죠~

아침에 단장할 시간조차 없이 아이,남편 등교,출근시키고/ 시간에 쫓겨서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이런 상황에서 이미지 좋은 매력적인 워킹맘이 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모에 더욱 신경 못 쓰고 출근한날/갑자기 학부모께서 찾아 오시기라도 하면/ 반갑게 맞이하기 보다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하게 되는 경우 한 두번은 있으셨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학부모에게 신뢰감가는 교사로 비춰지기는 힘들겠죠?

(MC)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강사)

이런 당황스런 모습을 접했을 때 /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첫인상이나 호감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를 만날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는 일은 쉽지 않을것 입니다.

첫인상은 여러분도 상대를 대할 때 느끼는 것처럼 짧은 몇초 시간에 결정짓게 되죠~

첫 인상의

1차적인 단서는 / 외적 이미지 중에서도/ 외모, 표정, 태도에서 느낄 수 있고

2차적인 단서는 / 언어적 이미지로 / 음성의톤, 말투, 말의내용 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명의 선생님중 A와B 어느 선생님이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A.B 삽화처리요망)**

A)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담임입니다.)라고 반갑게 맞아 주는 호의적인 선생님과

B) 당황하며, 의욕 없는 낮은 목소리로 -

(어머니 안녕하세요? 담임입니다. 왔으시죠!! ) 무표정의 무뚝뚝한 선생님..

두분 중 소장님은 어떤 선생님에게 좋은 첫인상을 느끼셨나요?

(MC)

당연히 A겠조^^~

(강사)

대부분이 A 선생님에게 좋은 첫인상을 느끼실 겁니다.

첫인상은 교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첫인상이 좋으면 긍정적인 평가를/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두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맥락을 이루어 그 이후에도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정보나 눈에 띄는 두드러진 단서만 갖고 상대를 판단하기에는 오판의 여지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보고/ 느낀대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므로 선생님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 제대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 /첫인상을 잘못 인식시켰다 라고/ 한다면 몇 번을 만나야 잘못 전해 준 첫인상을 / 좋게 만회 할 수 있을까요?

(MC)

3번이요.

(강사)

아닙니다.~ 무려 60번을 만나야 / 잘못된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60번을 만나 좋은 인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시간과 의지 있으십니까?

아마도 6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왕 괜찮은 선생님이시라면 처음부터 괜찮은 선생님이로 학부모에게 인식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에게 어떻게 첫인상을 전해주면 될까요?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을

첫번째는 선생님 복장 이미지 통해 느낀 첫인상입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 복장 스타일에 따라 추측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학생을 둔 학부모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치장을 하고 계시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잘 꾸미고 있으면 모가 나쁜거냐?) 다시 물어봤죠?/ 그 선배가 말하길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선생님은/ 학습진도나 아이들에게 신경쓰기 보다는/ 자신만 가꾸고 꾸미는 일에 더 집중하는 선생님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누구나 좋은 외적 이미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교사라는 사회적 이미지에서 너무 벗어난 듯한 옷차림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MC)(천천히~~^^)

네~ 복장 이미지가 중요하네요^^

그럼 두번째는 뭔가요?

(강사)

두번째는 선생님 표정이미지 통해 느낀 첫인상입니다.

옷차림 만큼 중요한 것이/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표정이죠 ~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면/ 반 아이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표정도 무섭게 목소리도 /단호하게 표현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기” 싸움 이라고 하나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런 표정에 /정말 기가 눌려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서운 표정과 말투로 표현하기 보다는/ 선생님들 본연이 갖고 있는 자연스런 표정 이미지를 찾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표정 연출이 안되고 표정이 부자연스럽다면 좋은 표정 만들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면과 마음을 지니고 계셔도 보여지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표정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

그럼 어떻게 좋은 표정을 만드나요?

(강사)

누구나 호감 주는/ 예쁜 표정 갖기를 원하지만,/ 좋은 표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의식이 습관이 될 때 좋은 표정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표정 만들기는 /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자꾸 연상하고 찾아내 의식적으로 좋은 표정을 많이 지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 연필 가로 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먼저** - 연필을 가로로 물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 근육운동효과로 미소표정이 자연스럽게 연출 됩니다. 이 연필을물고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 뇌에서는 웃고 있다고 인식하므로,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MC)

**(시연 :스틱 준비 -2개 )**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강사)

네~ 어렵지 않죠? 한번 해 보실까요? **(시연)**

매일 10분씩 해보세요.(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좋고) 변화된 표정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MC)

와~저도 당장 오늘부터 해봐야 겠네요^^

그럼 두번째는 뭔가요?

(강사)

두번째 - 다알고 계시는것일텐데..“이”로 끝나는 단어를 계속 발음 연습하는건데요

끝단어에서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게 포인트예요

이쁘지. 깜찍하지. 멋지지..그외 개나리. 개구리 뒷다리 같은 단어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의 표정을 보게 될 것 입니다.

(MC)

개나리, 개구리 뒷다리~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세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강사)

세번째 선생님의 바디랭귀지로 느껴지는 첫인상입니다.

인터넷,매체에서 연예인의 자세,태도 이미지는 논란이 되는 일들이 / 종종 있죠~

이런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장,표정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학부모를 대할때/ 좋은 자세. 태도를 보여줄 때 대화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첨부: 1.팔짱을끼고 몸을 뒤로 제치는자세 2.상대방쪽으로 몸을 향하고 팔을 오픈해서 벌리는 자세)

알아 두시면 좋은 두가지 바디랭귀지 팁! 알려 드리면

1. 호감주는 자세를 오픈 자세라고 해서 긍정적인 자신을 표현하는 자세로 팔을 양쪽으로 벌려 주거나,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쪽으로 몸을 향하는 자세는/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수용해 주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때 학부모와 거리는/팔 하나 길이 정도를 두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이 시선과 행동도 편안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2.비호감 주는 자세를 닫힌 자세라고 해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수용해주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비추어지는 자세는 팔짱을 끼거나, 등을 뒤로 제치는 것 그 외 머리를 자꾸 만지거나, 독특한 버릇 (손짓이나 손가락을 돌린다거나, 다리를 떠는것)같은 행동은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느끼는 태도 이미지는/ 성향이 다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 불손함으로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 합니다.

(MC)

지금까지 첫인상의 영향을 주는 시각적 요소인 옷차림, 표정,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강사)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미지는/ 가식이 아닌 진짜/ 선생님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죠?

(MC)

무엇보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

(강사) 클로징

네~ 선생님들의 진정한 내면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만약 내면과 다르게 표현 되어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식이 습관화될 때  
호감가는 좋은 나만의 매력이미지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미지 시대를 넘어 솔직하고 숨김 없다는 의미의 캔디드이미지(Candid)시대라고 합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적 이미지가 자신 내면의 표현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 할 때도 상대를 바라 볼 때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 교사와 학부모의 마음이 / 서로 소통하는 선생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선생님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이미지로  
표현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MC)

지금까지 린앤코 이미지 연구소 송현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